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창조절 : 오늘부터 대림절 전까지 창조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임시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시 임원회가 열립니다. 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예약 : 영월 동강 친환경포도 주문 받습니다. 5kg 25,000원, 산머루 2kg 18,000원, 포도즙 55팩 38,000원입니다.

교회생활안내 : 위생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급적 개인 컵(텀블러)과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신앙실천 : 세계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잠 1:20-33 / 시 19	2부	레 19:33,34
예배	약 3:1-12 / 막 8:27-38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김신실 안상숙 김혜영 이순용 이주경
 다음 주 식당봉사 :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권정연 조장형 한상균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7. 사랑의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새로운 절기, 창조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못 생명을 성숙의 세계로 이끄시는 주님, 영글지 못하고 뚝은 맛 나는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사역에 동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과 기아, 폭정에 시달리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도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친 바다와 고된 피난길에 죽어간 수많은 난민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국제사회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렘31:13,14 인도자
- ♣ 교 독 문 87. 계시록 21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대표기도 김기석 목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292.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 ♣ 성경봉독 I. 잠 22:1-2 약 2:1-10 막 7:24-37 이진영 집사
 II. 잠 11:1-11 오자영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창조주의 노래 찬양대
- 말 씬 I. 김기석 목사
 II. 의인이 잘되면 마을이 기뻐한다 김기석 목사
- 성 찬 식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고숙이 권미정 김경혜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대영 이효심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 김문주 김미향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일랑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해령 김정진
 김혜정 김주영 김주영 노우영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해리 리 봄 문홍일
 박규석 박경선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박상규 박상욱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방문성 박혜경 방 민 배재경 이수정 송형운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혜정 안보혜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유중희 윤성종 김윤정 이건우 이계숙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성범 권혁숙 이용석 이용현 이유진 이정은 이준림 임명희 임서영 임주빈
 최현옥 장기욱 장원호 박성희 장의림 정복순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조병무 송양진 주경진 이윤정 최미자 최재욱 이수정 최 현 최형균
 강경화 한상균 허성호 진은혜 현 진 홍소형 홍순복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강신철 이해경 국영주 김명기 김용길 최영혜 박경선 박병구 김인순 박예림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혜정 윤순우 임형욱 정복순 정원숙 차혜심 노미향
 최옥자 최지영 황선희 무명13

생일감사헌금 김하나 문홍일

녹색꿈헌금 정현선 유병선 최경미 최재욱 이수정 무명7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 혜 숙	박 성 희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렷	김 경 혜	홍 춘 숙		
다 메 섹	박 혜 경	박 혜 경		
두 란 노 1	김 재 흥	오 자 영		
두 란 노 2	김 재 흥	송 형 운		
두 란 노 3	이 범 석	이 진 영		
두 란 노 4	이 범 석	곽 상 준		
두 란 노 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슬픔이 하는 일

슬픔은 도적처럼 다녀간다
 잡을 수가 없다
 몸이 꿰인 불,
 울음이 목을 짝 눌러 터뜨리려 하면
 어디론가 슬며시 빠져 달아나버린다
 뒤늦은 몸이 한참을 부풀다 소리 없이
 수그러든다. 슬픔은 눈에 비친 것보다는
 더 가까이, 울음 곁에 있지만,
 깨질 듯 오래 아프고 난 다음이나
 가뭇하게 저를 잊은 어느 황혼
 방심한 고요의 끝물에도,
 눈가에 투명한 이슬방울 달아주고
 어느 곁에 사라지고 없다
 슬픔이 와서 하는 일이란 겨우
 울음에서 소리를 훑쳐내는 일
 슬픔이 가서 하는 일은 언제나
 하느님, 귀머거리 하느님,
 그 소리 날날이 들려드리는 일

- 이영광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등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가야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의롭고 정직한 길을 가십시오. 겸손하고 성실하게 무엇보다 이웃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아멘. 가야할 길이 있음에도 마치 길이 없는 냥 방황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서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장영숙 전도사	정윤성 선생 정현모 집사

9월	영접위원	김인걸 송동준 강세기 이소애 서정순 한양미
	헌금위원	김정민 김금순

성찬으로의 초대 / 집례자

집례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창조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만찬 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저희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회 중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피조세계의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이 땅 위의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찬 제정사 / 집례자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 주시사 여기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회 중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집례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

회 중 : 아멘.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눔)

분병례 / 집례자

집례자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아멘.

분급 / 집례자와 보좌

(제단 앞에 차례로 나와 세 줄로 섭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전병을 받습니다. 오른손으로 전병을 들어 포도주에 찍어 성찬을 받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 성찬식의 전병은 우리밀로 만든 것이며, 포도주는 홍월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